

傳統社會의 家庭教育에 대한 再照明

지 영 숙 교수(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1.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그동안 전통적인 농업사회로부터 빠른 속도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향해 질주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느끼는 어려움은 “가치관의 혼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진정 ‘훌륭한 삶’이고 어떠한 사람이 우리사회가 이상으로 하는 “훌륭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계학: 1993).

이러한 상황을 가정교육에 비추어보면 그 불분명함에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면 가정은 인간 삶의 원형으로서 가정교육은 삶다운 삶, 사람다운 사람의 바른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교육이고, 그 영향은 생을 두고 크게 영향하는 지속적인 장기교육이며, 삶의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육보다도 바른 인성(人性)을 형성함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는 점에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학교”라고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육이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준거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경험하는 가정적,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대체로 가정교육의 부재(不在)를 한탄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통을 조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긍정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무엇이 참뜻인가를 이해하여 오늘에 주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앞으로 어떻게 역할 할 수 있는가를 설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삶의 이념과, 사람다운 사람을 위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정교육은 어떠했는지?

그렇다면 오랫동안 전통사회를 이끌어가던 유교사상은 실천철학으로서 우리에게

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기에 한국의 전통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유교적 문화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유승국 외: 1978). 한국의 유교적 전통은 무엇보다도 현실의 기준을 정립하고 미래를 지향하였던 가치관, 즉 유교적 도덕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도덕의식의 역사적 축적이 곧 유교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을 조명하는 본 연구의 접근은 유교문화 속에서의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傳統社會에서의 家庭, 家庭教育

한국의 전통사회는 유교적인 도덕의식, 즉 전통윤리가 삶의 방법이고, 대응양식이며, 사회질서의 안정된 구조의 탐색이요, 지탱의지이다. 이때 중요한 핵심은 인간에 대한 독특한 이해(인간의 내면적 인격성)를 전제로 삼고, 인간존재 속에서 도덕규범의 근거와 가치의 근원을 확인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도덕성은 철저히 인간의 내면 속에서 발견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능동적 실천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금장태: 1994).

이와 같은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도덕적 실천규범의 영향은 개인적 도덕의식의 확립과 사회기반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격적 내면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仁, 義, 禮, 智, 信, 忠, 孝, 烈로서 인간관계를 맺는 인격적 덕성과 가정 및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강화하는 인간관으로 자리하고 추구되었다.

따라서 유교문화 속에서 가정(家庭)의 뿌리는 가족 구성원 개체이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근본적 힘은 '나' 개인이 자기수양(自己修養)을 근본으로 하여 가정을 운영하고(齊家), 그로부터 확장하여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것(平天下)으로 그 실현을 확산시킨다.

이렇듯 천하를 다스리는 출발점은 개인적 인격수양이고 다음은 공동체로서의 가장 적은 단위인 가정에 됨으로써 유교적 가치의 실현장이 곧 가정(家庭)이었으며, 그로부터 모든 사회적 질서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유교사회의 윤리체계는 자기(自己)에서 출발하여 가정(家庭)을 통해서 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확장적 윤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덕목이 효(孝), 제(悌), 자(慈)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통가정은 가족주의, 혈연주의에 폐쇄되지 않도록 그에

앞서 개인의 수양론적 내면성과 개체성에 더 큰 의미를 두었고, 인간 관계뿐 아니라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정의를 조화시키도록 함으로서 “이익을 얻게 되면 의리를 생각하라(見利思義)”하여 인간적인 삶에서 충돌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덕적 양심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가정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실천적 내용의 대부분은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의식을 함양하는데 모아졌다.

우선 심신을 관리하기 위해 경박함이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된 몸가짐과 언어, 마음씀이 생활습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고, 禮의 실천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특별히 효(孝)와 공경(共敬)의 의미를 깨달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知行一致로의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식과 존재의미를 고취시켰던 것이다.

결국 전통사회에서 가정은 한 인간을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성숙의 근원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3. 傳統家庭教育이 갖는 意味

전통사회의 교육원리와 철학은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실천학문을 중시하였고 학습자의 자세는 인간다움의 길을 갖춰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 또한 도덕적 인간이 되도록 수기(修己)가 먼저 강조됨으로써 인간의 기본도리를 다하는 “인간다움”에 모아졌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것이 「人間과 仁」에 대한 설명이고, 「仁」은 사람다움이며, 인간의 본질은 「仁」에 있다는 것이다.

전통사회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많이 알려져 온 율곡(栗谷; 1536~1584)과 다산(茶山; 1762~1836)의 경우를 보더라도 율곡은 1)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하여 몸가짐을 실천하는 교육(持身)에서 특히 “敬”(이기심을 자제하고 근신하게 하는 내적태도)의 자세를 九容과 九思, 즉 아홉가지 용태와 아홉가지 생각을 제시하고 이것이 근본이 되어 다른 덕목들이 실천될 때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하였다. 九容, 九思의 요지는 걸음은 무게 있게, 손가짐은 공손히, 눈은 단정히, 입놀림과 말소리는 정숙히, 머리의 움직임은 곧게, 숨쉬기는 조용히, 설때는 바르게, 얼굴은 장엄하게, 보는데는 밝게, 듣는데는 총명하게, 안색은 온화하게, 모습

1) 격몽요결(1577): 몽매한 청소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실천교육서로서 立志, 革舊習, 持身, 讀書, 事親, 喪制, 祭禮, 居家, 接人, 處世의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공손히, 성남은 참고, 의심스러움은 물을 것 등이다. 또한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 극기(克己)를 강조하였으니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色, 利, 安逸, 珍味...)이 의리(義理)에 합당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고 이에 도덕적 기준을 두어 가르쳤음을 들 수 있다.

다산(茶山)의 경우에도 수신(修身)에서 출발하고 품성과 언행을 함께 중시하여 정의(正義), 양심(養心), 근검(勤儉), 용기(勇氣), 서(恕)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恕(絜矩之道, 자기를 척도로 남을 헤아리는 도리)에 대해서는 헤아림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하여 道의 핵심내용으로 파악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규범으로 삼아 자신의 善을 행하는 방법으로 대단히 중히 여겼다(恕는 孝悌慈로부터 仁을 이루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며 실행토록(인간다움)함에 있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도덕적 가치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修己).

이것은 한 개인의 품성(品性)으로, 또는 언행(言行)으로, 나아가 모든 가치판단의 잠재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내면적 인격성”을 계발하는 것이 된다.

4. 나가며

우리의 생활문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면서 확고한 기반을 다졌던 유교문화 속에서 가정과 가정교육의 위치 및 역할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였다.

유교문화에서 가정의 뿌리는 가족구성원 개체이고, 그 개체는 자신의 인격적 수양(修養)을 가장 근본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가정은 개인의 수신(修身)과 인간다운 삶의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는 작은 공동체적 장소였다. 이와 같은 실천윤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모든 사회적인 질서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전통윤리인 것이다(확장적 윤리체계).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과 가정교육은 도덕적 인격을 확립하는 수신을 기본과제로 하였고, 더 나아가 내면적인 수양에서 머물지 않고 외향적으로 제기되는 규범으로서의 의리(義理)를 중심가치로 적용함으로써 강한 실천적 결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가정교육(家庭教育)은 개인적 수양론(修養論)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조화(調和)를 이루는 상호적(相互的) 윤리덕목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정교육은 초기에는 바른 습관과 예절을 몸에 익히고 성장하면서 인간다운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우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인격적 성숙을 함양하는데 있었으니, 인간다운 인격체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에 기초한 내면적 인격성과 타인을 향한 능동적인 실천으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예로부터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즉 인격적 성숙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가정은 어떤 가치관에 기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느끼며 보여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가치관은 인간의 모든 생활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혀주거나 좋고 싫음을 밝혀주는 일반적 신념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근원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행동목표와 방향을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바람직한지”보다는 “무엇이 더 좋은지”가 우선하고 “무엇이 더 이로운지”가 최우선시 되면서 행동방식이나 결정에 대한 기준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실마리를 찾는데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에 대한 기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金章泰(1980): 儒敎와 韓國思想,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_____(1982): 韓國儒敎의 再照明, 서울: 展望社.
_____(1995): 儒學思想과 儒敎文化, 傳統文化硏究會.
柳承國, 柳正東 外(1978): 儒學原論,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李啓鶴(1993): 韓國人의 傳統敎育思想과 家庭敎育, 精神文化硏究院.
柳惠玲(1993): 傳統家庭敎育의 人間性, 精神文化硏究院.
禹英姬(1989):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敎育, 中央大學校 大學院.
池英淑(1987): 丁若鏞의 家庭敎育觀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洪달아기(1993): 栗谷의 家庭敎育觀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東亞日報社(1996): 東洋思想과 社會發展國際學術會議 자료.

< 토 론 >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에 대한 재조명

김 양 희 교수(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이란 제목으로 지영숙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가정은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장(長)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인간학교”라는 말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 앞으로 현대 가정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전통 가정교육과의 접목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자 한다.

전통사회는 유교적 이념을 근거로 가정 내에서 유교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왔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교적 가정교육은 부계중심의 사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남녀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되면서 한편에서는 전통 가정교육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정교육에 대한 자성이 일면서 전통적 가정교육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현대의 복잡한 생활과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가족제도의 변화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으며 가정에서의 예절교육도 소홀해졌고 이에 따라 신세대들은 예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부모세대가 자녀들에게 예절의 모범을 보여줄 능력이 부족함으로써 예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퇴색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변해버린 물질주의 사회, 서구의 민주주의, 합리주의가 유입되면서 개인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정교육은 성인 중심적 교육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보다는 경쟁에 이기기, 우수한 학교성적 획득하기 등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사회에서 대우받고 경제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교육도 학과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중심의 자녀교육관과 학과공부 위주의 가정교육은 자녀들에게 지나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예로,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자신의 한풀이식 교육으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또,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영재교육, 중·고등학교의 과외학습, 조기유학 등을 볼 때 그 교육열은 대단하다. 일류대학 입학에 위한 부모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인데 이는 한국사회의 부모들이 살아온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교육의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많은 격동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를 터득하게 되었고, 전통적 계급사회의 논리를 어느 정도 경험한 세대로 계층이동의 확실한 방법이 교육임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가정의 인간교육, 도덕교육에 우선한다. 교육의 모든 노력은 오로지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므로 인간성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은 낭비로 여겨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교육의 결핍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자녀의 예절교육이나 도덕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많지 않다. 가정교육은 일상 생활에서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는데 자녀와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되어 있으므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람됨을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교육, 가정교육의 부재는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의 전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이기적인 인격을 갖게 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책임감, 예의바름, 자립심, 인내심 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토론자는 가정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예절교육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고 싶다.

예란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도리이고 질서이며 약속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일정한 규범 속에서 생활하게 되며 사회는 인간에게 행동의 절제와 규범이 요구하는 것으로 경(敬)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존경과 공경의 의미이다.

예의 의미는 경천사상(敬天思想)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예는 인간 삶의 중대한 일인 관혼상제에서부터 이웃과의 일상적 교제에 이르기까지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법, 행동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걸쳐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지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통 가정교육은 수기(修己)를 강조하였는데 예절교육 역시 자신의 다스리는 수기(修己)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치인(治人)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과의 조화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가정학에서 전통적인 가정교육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되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예절교육을 강조하고 예절교육의 현대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가정교육의 부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